대전주보

<2024년 사목교서 표어> 성사 은총 안에서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공동체

발행 김종수(제2797호) **편집** 천주교대전교구 홍보국
E-mail tjubo@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djcatholic.or.kr

당진포공소(당진성당) / 그림 안종찬(바오로), 2023년

연중 제16주일(농민 주일) | 2024년 7월 21일(나해)

제1독서 예레 23,1-6

화답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2독서 에페 2,13-18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복음 마르 6,30-34

영성체송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신학교 지원반 여름피정
7월 29일(월)~31일(수)
수리치골 피정의 집

예비신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향기

“회복”

허숭현 안셀모
대전 가톨릭 농민회 전담

찬미 예수님!

저는 올해 대전 가톨릭 농민회 전담신부로 발령을 받은 허숭현 안셀모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지난 6개월 동안 대전 가톨릭 농민회 전담신부로 지내면서 계속 묵상이 되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복”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하느님 구원계획의 완성은, 창조 때의 모습으로 다시금 되돌아가는 회복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향한 첫걸음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근간이며, 뿌리인 땅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회복을 위해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 우리의 회복이 온전히 완성되었지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 끝날까지 기억하고 행하라고 하신 성체성사의 신비 안에서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는 성체성사의 신비 안에서 우리의 노동으로 마련된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신비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며, 우리들의 구원의 완성인 온전한 회복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가톨릭 농민회는 바로 이러한 하느님의 구원계획 안에서, 우리 모두의 회복의 근간이며 뿌리인 땅을 일구며, 보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우리의 지구가, 우리의 땅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톨릭 농민회원들은 하느님의 창조질서와 구원의 의지에 따라 유기농, 친환경적인 농법을 통해 우리들의 근간인 땅을 조금씩 회복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회가 발전이 되면 될수록 생명의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우리의 땅과 농업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해 농민 주일을 맞이하고 지내면서 우리 대전 가톨릭 농민들이 하느님 구원계획 안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으로써 함께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우리들이 서로를 위해 기억하고, 기도하고, 함께하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들의 회복, 하느님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들 삶의 모든 모습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바울이 (1079)
유판식 토마스

cpbc 대전가톨릭평화방송 FM 106.3MHz「오늘의 강론」 7월 22일(월)~27일(토) 오전 6시 50분 성연 주임 박상언 신부 편

지구시민 행동수칙 10가지

본격적인 여름과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에너지와 일회용품 등의 사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가 일찍부터 폭염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올여름에는 동남아 날씨가 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5월 29일(현지 시간) 인도 뉴델리는 52.3도까지 수은주가 치솟았습니다. 따라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해 정전 사태가 나고, 물 부족으로 제한 급수까지 하는 상황에서 사망자도 속출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멕시코에서는 폭염과 탈수로 숲에 사는 원숭이들이 나무에서 열매 떨어지듯 떨어져 폐사했습니다. 인간은 물론 야생동물까지 살기 어려운 더위가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가 **지구시민 행동수칙 10가지**를 지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올여름에 이 수칙을 염두에 두고 생활하면 밀려오는 재난의 파도를 다소나마 누그러뜨릴 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다 나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첫째, 목소리를 냅시다 : 친구와 가족, 동료들에게 탄소 감축을 독려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운동에 참여합시다.

둘째, 정치적 압박을 가합시다 : 지역 정치인과 기업가들이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합시다.

셋째, 교통수단을 바꿉시다 : 수송부문 탈탄소를 위해 먼저 변화에 나섭시다.

넷째, 전력 사용량을 줄입시다 : 사용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전자제품을 끄고, 에너지 효율을 높입시다.

다섯째, 식단을 바꿉시다 : 식물 기반의 식사를 늘린다면 지구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감사할 것입니다.

여섯째, 지역에서 구매하고, 지속가능 관련 상품을 구매합시다 :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일곱째, 음식물을 버리지 맙시다 : 식품 생산량의 3분의 1을 버리거나 잃어버립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8~10%에 달합니다.

여덟째, 기후에 맞춰 스마트하게 입읍시다 : 적게 사고 오래 입읍시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8~10%를 차지합니다. 또 요즘 옷의 대부분은 폴리에스터 등 플라스틱 성분이 섞여 있습니다.

아홉째, 나무를 심읍시다 : 매년 1,200만ha의 숲이 파괴됩니다. 그만큼 탄소흡수원이 없어집니다.

열째, 지구친화적 투자에 집중합시다 : 탄소집약 산업에 투자하지 않는 투자기관에 투자한다면, 시장에 명확한 탈탄소의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불휘햇빛발전협동조합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22.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로 고통받는 뭇 생명들을 기억하며 쓰레기 만들지 않기

쓰레기 없는 삶의 두 번째 원칙은 쓰레기를 줄이는 것(Reduce)입니다. 오늘날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는 쓰레기를 만들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 가게에서 물건 하나만 사도 포장지가 따라오는데 어떻게 쓰레기를 줄일 수 있겠느냐구요? 멀쩡한 물건을 쓰레기로 만들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어쩐지 사야할 것 같은 할인품목들, 언젠가 쓸지 몰라서 넉넉하게 채워두는 물건들, 소비기한이 지나 버려지는 식재료들, 옷장 안에만 있다가 버려지는 옷들을 구입하지 않는 것부터요. 쓰레기는 잘 분리해서 배출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딘가로 옮겨져서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심지어 다른 나라로 수출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집인 지구가 점점 더 엄청난 쓰레기 더미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찬미받으소서」 21항)" 자, 이제 나의 소비습관을 점검하면서 쓰고 버리는 문화에 저항을 시작합시다.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 생태환경위원회

6. 미사에 대해서

왜 미사를 봉헌해야 하나요?
기도를 매일 충분히 하면 미사는 참례하지 않아도 되나요?

미사, 곧 전례에 참여하는 것은 가톨릭 신자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미사를 참례할 시간이 없고, 성당을 오고 가는 시간보다 홀로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를 매일 충분히 하면 미사를 참례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닐까?"라는 질문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미사를 봉헌해야 하는 것일까요?

현재 가톨릭교회에서 매우 중요시하면서, 구체적인 신앙의 이정표가 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의 전례 헌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례 안에서 인간의 성화가 감각적인 표징들을 통하여 드러나고 각기 고유한 방법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모든 전례 거행은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그 몸인 **교회의 활동이므로 탁월하게 거룩한 행위**이다. 그 효과는 교회의 **다른 어떠한 행위와 같은 정도로 비교될 수 없다**"(7항). "전례는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10항).

곧, 전례는 교회가 하느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로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례는 사적 행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예식이자, 교회 공동체의 공적 기도입니다. 특히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 제사의 재현이며, 성체성사를 이루는 가톨릭교회의 제사이자, 축제입니다.

미사는 예수님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나누는 잔치입니다. 다시 말해,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며, 이 행위로써 기념하는 신비가 우리 안에 현실화됩니다. 이 기념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부께 바친 제사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봉헌하는 것입니다(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16항 참조).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봅시다.

"왜 미사를 봉헌해야 하는가?" 주님의 영광과 기쁨, 은총을 나눠 받아 그 거룩한 신비가 구체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미사를 봉헌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해 드린 대로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공적인 기도이자, 은총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미사는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도이자 행위입니다.

"다른 기도를 한다면 미사 참례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공적으로 함께 봉헌하는 미사와 개인적으로 봉헌하는 기도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완전한 기도는 미사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면, 신앙의 여정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신앙과 삶에서 힘을 얻고자 한다면 우선 성당에 나가 미사 참례를 해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궁금한 질문은 tjubo@djca.kr 메일 발송해 주세요!

• **윤진우 세례자요한 신부** 사목국 부국장

성지를 걷다_해미순교자국제성지(3)

3. 매일 11시 미사가 있는 국제성지

여숫골 · 해미읍성 · 서문 밖 순교지 · 한티고개 순례지로 구성된 해미순교자국제성지는 해미에서 순교한 세 분의 복자인 인언민(마르티노), 김진후(비오), 이보현(프란치스코)과 많은 무명 순교자의 삶과 신앙에 따라 순례자들이 헌신적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성지는 매일 고해성사와 함께 11시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또한 순례자들은 생매장터에서 발굴된 무명 순교자들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유해참배실과 묘소, 서문 밖 순교자들의 피가 배어 있는 자리개돌과 산 채로 수장된 진둠벙, 해미읍성 옥터 등을 순례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진둠벙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한참이나 "이름 없이, 이름 없이"를 반복하며 기도했던 곳이다. 신앙공동체를 통해 하느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체험으로 박해의 칼날 앞에서도 기쁘게 죽음을 받아들인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 해미성지를 순례하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길 희망한다. 또한 최근에 개관한 '디지털역사체험관'을 통해 좀 더 생생한 순교자들의 삶과 동반하길 바란다.

글·그림 해미순교자국제성지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skylife 184번 / olleh tv 231번 / Btv 307번 / U+tv 274번

교구알림

대전교구 민족화해위원회 7월 평화기원 월례미사
- 때 : 7.23(화) 19:00
- 곳 : 계룡성당
- 미사집전 : 대전민화위 위원사제
- 문의 : (042)636-1331

2024 대전교구 청년 공모전
- 부문(개인·단체) : 교구청년연합회로고(개인), 독후감(개인), 청년단체 우수사례(단체)
- 접수 : 9.22(주일)까지
- 방법 : 참가신청서(구글설문) 작성& djyouth@daum.net 공모작 제출
- 문의 : 청소년국 (042)626-6773, 카카오톡 채널 '천주교 대전교구 청년', '대전교구 가톨릭 대학생 협의회'

여름가족캠프 '소풍가여~'
- 때 : 8.9(금)~10(토)
- 곳 : 공세리성당 피정의집
- 대상 : 초·중등 자녀를 둔 가족
- 참가비 : 1인당 10만원
- 접수 : 청소년국 홈페이지
- 주최 : 사회적협동조합 온
- 문의 : 010-2598-8000

전담사목

제49차 젊은이 성령묵상회
- 때·곳 : 8.24(토)~25(주일) 1박 2일, 새얼센터
- 대상 : 고1(2008년생)~고3(2005년생) 만20세 이상 교구 미혼 젊은이
- 모집 : 8.10(토)까지 / 참가비 : 10만원
- 신청방법 : 카톡플친[아자리아], 인스타DM[AZARIAH_2021]
- 선착순 : 고교생 10명, 젊은이 40명
- 입금 : 농협 301-0274-0526-51 천주교 대전교구 성령쇄신봉사회
- 문의 : (042)824-6773

제 75차 교구 성령묵상회
- 때·곳 : 8.17(토)~18(주일) 1박2일, 새얼센터
- 참가비 : 10만원 (숙박 : 12만원)
- 접수 : 8.10(토)까지 / 선착순 60명 마감 숙박 선착순 40명 2만원 추가
- 주제 : 무엇을 원하느냐(마태 20,21)
- 방문 및 팩스, e-mail접수(tjcrs@hanmail.net)
- 계좌 : 농협 351-1272-6090-53 천주교대전교구성령쇄신봉사회
- 문의 : 교구성령쇄신봉사회 (042)824-6771

청년 성시간
- 때 : 7.24(수) 19:30
- 곳 : 하품센터 (천안시 서북구 월봉5길 23)
- 대상 : 청년 누구나
- 문의 : (041)572-7179, hapum7179@gmail.com

행복한 혼인생활을 위한 제231차 주말ME
- 때 : 8.30(금)~9.1(주일)
- 곳 : 해미 웨이크업센터
- 대상 : 결혼 2년 이상 부부(종교 불문), 성직자, 수도자
- 신청·문의 : 010-9746-0179, 010-3637-9746
- 인터넷검색창 : 대전교구 가정사목부 http://familia.djcatholic.or.kr

교구 내 기관 및 시설

대전가톨릭평화방송 성지순례
- 10.10(목)~22(화) 남프랑스(13일) 550만원(대한항공)
- 10.20(주일)~28(월) 그리스 섬(9일) 535만원(대한항공)
- 11.1(금)~13(수) 유럽3대 성모발현지(13일) 510만원(대한항공)
- 11.18(월)~21(목) 나가사키, 고또(4일) 160만원(대한항공)
- 공동경비 별도(1인 1일 10유로)
- 문의 : 대전가톨릭평화방송 (042)250-3200 분도여행사 (02)852-8525

대전가톨릭가정 · 성폭력통합상담소 무료상담
-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피해자 지원
- 상담방법 : 내방, 전화
- 상담시간 : 월~금 09:00~18:00
- 문의 : (042)636-2033~4, 2036, 624-3288

정신재활시설 햇살한줌 이용회원 모집
- 대상 :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성인
- 이용시간 : 09:00~16:30 (월~금)
- 서비스 : 상담, 교육지원, 취업 및 자립지원사업 등
- 주소 :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별관 2층 (대덕구 오정동)

문의 : (042)622-7018

교회 운동 및 인준단체

파티마 세계사도직 (쎌)첫토요일 신심미사
- 때 : 8.3(토) 시작기도 10:00, 미사 11:00
- 곳 : 대흥동 가톨릭문화회관
- 문의 : 010-4939-8688

천주교 대전교구 합창단 단원모집
- 연습 : 매주 월 19:30, 원신흥동성당
- 문의 : 010-9656-2295
- 담당사제 : 전원석 베드로
- 단장 : 서옥경 가타리나

제14차 포스트 꾸르실료 참가자 모집
- 때 : 10.19(토)~20(주일)
- 모집 : 남녀 혼성 60명
- 곳 : 정하상 교육회관
- 참가비 : 10만원 (1박 2일)
- 자격 : 꾸르실료 교육 수료자로 주임신부와 울뜨레야 간사의 추천을 받은자

대전교구 음악선교단 작은평화 단원모집
- 대상 : 기타, 건반, 베이스
- 자격 : 음악과 주님을 사랑하는 2~30대 천주교 신자
- 소정의 오디션 후 선발
- 문의 : 010-8922-5469, 010-2865-9273

가정사목부 프로그램 안내

• 신청 : 가정사목부 홈페이지 http://familia.djcatholic.or.kr • 문의 : (042)256-5487~8

프로그램	때 · 곳	대상
태아와 산모축복(영유아)미사	7.24(수) 10:00, 모산성당 7.26(금) 10:00, 천안용곡동성당	임산부, 영유아
가정과 생명을 위한 미사	7.25(목) 10:00, 천안신부동성당	모든 신자
혼인교리	8.3(토) 비대면	혼인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이화병원
이종민(카타리나) 김지연(아녜스)
산부인과(수술전문)/유방외과/MRI,영상진단센터/
종합건강검진센터/내과/신경과/인공신장실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65 T. (041)579-1400

척추·관절 허리사랑병원
대표원장 : 김관태(바오로)
척추·관절 전문의 10인 진료
T. (042)528-7588 롯데백화점 옆

모두의 안과
원장 : 이영훈, 진선영, 백승국(라파엘)
영등포 김안과, 건양대병원교수출신
망막, 녹내장, 백내장 중점진료
을지대병원 근처 T. (042)721-2211

연세내과
(365일 24시간 진료)
내과전문의 박준용(베드로)
둔산 타임월드 정문 앞 T. (042)485-8000

대전성모안과
원장 : 박인철(미카엘) Since 1998
(전)우리성모안과 원장 (전)눈빛안과 원장
롯데백화점 맞은편 T. (042)533-0078

이안과병원
의료법인 청운의료재단(이안과병원)
병원장 : 이여덕(바오로)
안과전문의 : 6인진료
T. (042)220-5500 대흥동 성당 맞은편

교구 외 기관 및 시설

생활성서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북콘서트'
- 도서 : 사랑은 늘 미안하다
- 때 : 7.28(주일) 14:00
- 강사 : 김용태(마태오) 신부 / 공연 : 김선태 신부
- 곳 : 가톨릭문화회관 마리아홀
- 문의 : (02)945-5985 / 참가비 : 무료
- 당일 성당 내 주차 불가, 근처 공영주차장 이용

가톨릭청소년회 대구청소년수련원
- 성인&대학생 필리핀 영어연수·해외봉사
- 내용 : 8.25(주일) 출발
- 지역 : 필리핀 바콜로드
- 내용 : 주중영어연수, 주말봉사활동 (봉사인증가능)
- 문의 : 대구청소년수련원 (053)593-1273

상담의 이해와 기술
- 때 : 8.5~9.9(월) (19:30-21:30) 6주간
- 곳 : 가톨릭문화회관 401호(대흥동성당)
- 진행방식 : 대면, 비대면(줌 동시 진행)
- 신청 : 마음정원영성센터 (042)862-9780, 010-5392-6353

도림동교육센터 가을 학기 신입생 모집
- 대상 : 재학 중인 남학생
- 홈페이지 : dorimdongcenter.org
- 내용 : 가을 학기 기숙사 학생 모집, 가족과 공부 분위기, 여러 교육 프로젝트 (문화, 봉사활동, 문학, 운동, 국제교류 등), 개인방+개인화장실
- 운영·영성지도 : 동아시아국제교류재단 /오푸스데이
- 문의 : 010-2554-1507 dorimdongcenter@gmail.com

새로운 복음화학교 피정[ICPE]
- 때 : 8.13(화)~18(주일)
- 곳 : 수원교구 영성교육원
- 대상 : 모든 신자(자녀동반가능)
- 문의 : 010-5531-1008

대전 밀레마니 문화영성 센터
-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캘리그라피, 이콘
- 전례초조각(초·중·고급) 성가, 영성심리상담
- 프랑스성모발현지(공식인준6곳)순례 8.23~9.3
- 문의 : (042)226-8185 서대전네거리역8번출구

수도회 및 피정

예수수도회 메리워드 심리상담센터
- 심리 상담(청소년, 성인-개인, 부부, 가족 문제) - 문의 : 010-5784-8585
- 모래놀이 치료(아동, 청소년, 성인) - 문의 : 010-3488-6765
- 곳 : 예수수도회 교육센터(대전성모여고 내)

청주초정성령회관 치유피정
- 때 : 7.27(토) 14:00~28(주일) 14:00
- 곳 : 초정성령회관
- 피정 참가비 : 2만원 / 청소년 무료
- 강사 : 김완식 요셉 외 유명강사
- 진행 : 고영민 안드레아(음악부)
- 문의 : (043)213-9103, 010-5482-6744

예수마음선교수녀회 기도 장소 대관
- 곳 : 경기도 여주 신단2길 109-13
- 대상 : 개인 및 소그룹(6명 이내)
- 구성 : 경당, 개인침실 6개, 거실 및 주방
- 기타 : 식사(직접취사), 여주전철역-자가용 10분
- 문의 : (031)885-5015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젊은이 모임
- 때 : 7.28(주일) 14:00
- 곳 : 대전가톨릭회관 4층
- 대상 : 만39세이하 가톨릭미혼여성
- 문의 : 010-3679-7198 강피아 수녀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 수사 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순례와 성무일도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 생태순례(우도포함) : 8.14~17, 8.21~23
- 성지순례(추자도포함) : 9.7~10, 11.3~6
- 생태순례 : 9.1~3, 9.20~22, 9.28~30, 10.28~30, 11.9~11, 11.14~16
- 문의·접수 : (02)773-1463, (064)756-6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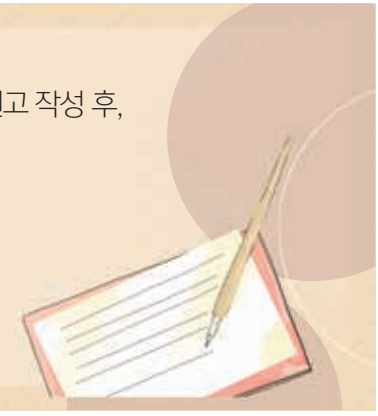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 성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연중피정 접수중)
- 대상 :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 우도포함자연순례 : 8.6~8, 8.10~13, 8.24~26
- 자연순례 : 9.2~4, 9.7~9, 9.21~23, 9.26~28
- 추자도포함 : 9.11~14, 10.5~8, 10.27~30
- 문의 : (064)796-4182, (02)773-1455(제주자연피정)

내적치유나 영적돌봄에 관심있는 분
- 2024년 가을학기 임상사목교육(C.P.E.)프로그램
- 때 : 8.13~12.21 - 평일반 또는 토요반
- 곳 : 섭리C.P.E센터 / 8명 선착순 모집
- 문의 : 010-8863-3637 천주섭리수녀회

우리성서모임 정규/단기반 모집
- 내용 : 예언서(화), 서간(수), 요한복음/묵시록(목)
- 시간 : 오전반 9:30 / 저녁반 7:00
- 개강 : 8월 마지막 주간
- 문의 : 우리성서모임 010-2985-9020

대전주보 「교구 신자들의 신앙 나눔터」는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지면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수필 형식으로, 200자 원고지 6장 또는 A4(10pt) 용지 25줄 이내로 원고 작성 후,
연락 받으실 연락처를 기입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원고는 각각 **9월 29일, 12월 29일 주보**
「교구 신자들의 신앙 나눔터」 지면에 실리게 되며, 채택되신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2 대전교구청 홍보국
이메일 : tjubo@djca.kr / **문의 :** (044)270-3041 홍보국



한끼100원나눔운동 2024년 사랑의 온도현황 **44.2°C** 총 모금 442,934,472원

[7.1~6 모금액] 20,188,961원
본당 18,469,161원 / 개인·기관·행사 1,719,800원

미카엘 여행사 국내·해외성지순례
8/18 베트남 하노이 5일 8/26 발칸·메주고리예 12일
9/2 베트남 다낭 5일 10/28 베트남 나트랑·달랏 5일
(대전·청주출발) 제주·한국성지167 모집중
정상훈 미카엘 010-8650-9690

더 웰 피부과
박장규(안토니오) 김형주(방지거)
유성점 T. (042)825-3045
유성온천역 6번 출구

보나투어 성지순례
8/16 말레이시아 페낭&말라카 순례 6일 225만원
9/23, 10/21 마카오 도보순례 4일 139만원
12/19 남인도 성지순례 13일 595만원
T. (02)732-4578 보나투어를 검색해 보세요

행복나눔 이사
사무실 이사, 포장 일반 이사
이종수(야고보) 김영숙(실비아)
T. 1877-9924, 010-2575-2176

킴벨 피부과병원 (가톨릭피부과)
국내 유일 피부과 2차병원
T. (042)471-7575

구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 우울증, 공황장애)
원장 구미량(헬레나)
롯데백화점 건너편 T. (042)532-7009

찬미가(Hymnus), 세 번째 이야기
– 산문체 찬미가 중 '사은(謝恩) 찬미가'(Te Deum)

찬미가의 세 번째 이야기는 산문체 찬미가 세 개 중 "사은(謝恩) 찬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은 찬미가', 라틴어로 'Te Deum(테 데움)'은 찬미가의 첫 번째 가사인 "Te Deum laudamus, te Dominum confitemur(주님이신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을 주님으로 고백하나이다)"의 첫머리를 제목으로 사용합니다.

'Te Deum'은 성 암브로시오(St.Ambrosius, ca.340–397)의 사은 찬미가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학자들의 연구로는 레메시아나(Remesiana)의 주교 성 니체타스(St. Nicetas, 333–414)가 지은 것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찬미가는 사순 시기를 제외한 주일과 대축일, 성탄 및 부활 팔일 축제 기간 그리고 교회의 특별한 날에 불리는데, 전례적으로 성무일도의 아침 독서기도 중 제2독서에 따른 응송 후에 이어서 부릅니다.

'Te Deum'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사 1–5행으로 하느님을 찬미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가사 6–13행으로 삼위일체 안에서의 신앙을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가사 14–29행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지면 관계로 아쉽게도 라틴어 가사를 생략합니다.)

1. 주님이신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을 주님으로 고백하나이다.
2. 영원하신 아버지를 온 세상이 삼가 받드나이다.
3. 하늘의 모든 천사, 케루빔과 세라핌이
4. 끊임없이 소리 높여 노래부르니
5.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6. 엄위하신 주님의 영광이 하늘과 땅에 가득하도다.
7. 영광에 빛나는 사도들의 대열
8. 무수한 예언자들의 대열
9. 눈부신 순교자들의 무리
10. 아버지를 높이 기려 받드나이다.
    땅에서는 어디서나 거룩한 교회가
11. 그지없이 엄위하신 아버지
12. 친아드님, 받들어 모셔야 할 외아드님
13. 위로자 성령을 찬미하나이다.
14. 영광의 임금이신 그리스도님,
15.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드님,
16. 사람을 구원하시려, 몸소 사람이 되시려
    동정녀의 품을 마다하지 않으셨나이다.
17. 죽음의 가시를 쳐버리시고 믿는 이들에게
    천국을 열어주셨나이다.
18. 지금은 하느님의 오른편, 아버지의 영광 안에 계시며
19.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20. 보배로운 피로써 구속받은 당신 종들,
    저희를 구하시기 비옵나니
21. 저희도 성인들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22. 주님,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차지하신 백성에게 강복하소서.
23. 당신 백성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영원토록 이끌어주소서.
24. 나날이 주님을 기리는 저희가
25. 영원히 주님 이름 기리오리다.
26. 주님, 저희를 어여삐 여기시어 오늘 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소서.
27.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28.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께 바라는 영생을 얻게 하소서.
29. 주님, 저희가 주님께 바라오니 영원히 부끄럼이 없으리이다.

끝으로 그레고리오 성가와 여러 작곡가 중 헨델, 하이든, 아르보 페르트, 멘델스존, 이문근 신부의 'Te Deum'을 감상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신혜순 데레사 연주학박사(지휘)

제29회 농민 주일 담화
농촌과 도시가 함께 만들어 가는 생명 공동체

농민 주일은 농민을 위한 날이자 농민들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를 소비하는 도시 생활인을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서른 번째 해를 앞둔 지금 그 참된 의미를 다시 생각하여 봅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회복하고, 생태적 회개의 삶을 살아가며,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주님은 우리의 정의"(예레 23,6), "어서 저를 도우소서"(시편 70,1)라고 외치는 농민들과 함께, 지금까지 가톨릭 교회가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상생의 길로 나아갑시다. [담화 중]

담화 전문 보기

제11차 소공동체 사목 연수

'제11차 소공동체 사목 연수 및 제1기 소공동체 촉진팀 수료식'이 7월 6일(토), 7일(주일) 양일간 사목국 산하 소공동체위원회(회장 김선태 요셉, 담당 김경호 신부) 주관으로 정하상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총 14개 본당, 110명이 참여한 이번 연수는 첫날 시작 미사(성경안치식) 봉헌, '소공동체와 촉진팀', '소공동체 촉진팀의 기본 교육', '영성 교육', '리더십 교육' 강의, 제1기 촉진팀 양성에 대한 사례 발표와 질의응답, 본당별 나눔과 발표가 이어졌다. 둘째 날은 '성사 생활과 소공동체'(윤진우 신부, 사목국 부국장), 말씀 생활과 소공동체'(김종수 주교, 대전교구장) 특강 후 교구장 주교 주례 파견 미사 봉헌으로 마쳤다.

이날 파견 미사 중 제1기 촉진팀 30명의 수료식이 있었으며, 제2기 촉진팀 양성은 제9차, 10차, 11차 소공동체 사목연수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목국과 신청 본당이 상의하여 올 하반기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세종성요한바오로2세본당 미사와 전례 특강

세종성요한바오로2세본당(주임 김민엽 신부)은 6월 30일(주일) 미사와 전례 특강을 했다.

홍보국장 강대원 신부의 특강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미사 전례'란 무엇인지, 그 예식에 따른 의미를 알아봄으로써, 그에 알맞은 성가를 부를 수 있는 성가대 단원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교육을 통해 교회의 공식 의식인 미사 전례 안에서 성가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예의를 배우게 되었다.

목동본당 첫영성체

목동본당(주임 김현홍 신부)은 7월 7일(주일) 교중 미사에서 19명의 어린이가 많은 교우들의 축복 속에 첫 영성체를 했다. 예수님을 모시는 기대와 설렘으로 첫 영성체에 임하고 예쁜 율동도 선물하는 시간이 되었다.

대전교구 성체신심대피정

대전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회장 김지은 마리아, 담당 김재덕 신부)는 6월 27일(목) 탄방동성당에서 성체신심대피정을 개최했다. '내 안에 머물러라'(요한 15,4)를 주제로 열린 이날 대피정에는 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원들, 신자들, 예비신자들까지 5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피정은 묵주기도를 시작으로 성체강복, 김재덕 신부의 성체신심 특강과 파견 미사로 진행됐다.

평화기원 생활성가 콘서트

대전교구 민족화해위원회(위원장 권지훈 신부)는 '6월, 평화의 달'을 보내며 주교좌 대흥동성당에서 6월 22일(토) '평화기원 생활성가 콘서트'를 했다.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 안에서 한반도 분단의 상황을 성찰하고, 화해와 용서를 통해 복음적 평화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평화기원 생활성가 콘서트'는 최옥희 아나운서의 사회와 희망을 노래하는 가톨릭 찬양 사도팀 'J_FAM'의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약 60명의 관객은 저마다 '평화'에 대한 지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나누는 등 한자리에 모여 가톨릭생활성가로 하나가 되고, 화해와 용서 그리고 사랑과 평화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노은동본당 주일학교 초등부 저학년 여름신앙캠프

노은동본당(주임 김유정 신부)은 6월 29일(토) 초등부 저학년 여름신앙캠프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마태 5,14)라는 주제성구로 진행했다.

어린이들은 성당 마당에 설치된 에어바운스 수영장에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하고, 예수님 모자이크 그림 꾸미기, 신앙섬 만들기 포스트 등을 하며 한층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냈다.